

**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  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3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4. 27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이규민 · 정찬민  
김진표 · 임호선 · 박 정  
전용기 · 오영환 · 민형배  
전재수 · 박광온 · 김남국  
의원(12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무연고자의 사망 전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 신설).

##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방법 등에 관하여”를 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례절차의 지원 등에”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	③ -----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④ ----- ----- -----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례절차의 지원 등에----- -----.